

# 스페인어 전치사의 문법화

김경희(한국외대)·이성하(한국외대)

## 1. 서론

스페인어는 인도유럽어족(Indo-European family) 중 이탈리아어군(Italic subgroup), 즉 로망스어군(Roman subgroup)에 속하는 언어이다. 로망스어군의 언어들은 5~6세기경 로마 제국의 쇠퇴와 몰락과 함께 구어체 라틴어인 통속 라틴어로부터 분화되기 시작한 언어들로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 카탈루냐어 등이 이에 속하며, 유형론적으로 모두 굴절어로 분류된다(변광수 편저 2003).

스페인어의 형태·통사적 특징은 굴절(inflexion)과 일치(agreement)이다. 명사와 형용사, 한정사는 성과 수 굴절을 하며, 명사구 내에서 형용사와 한정사는 핵인 명사의 성수에 일치되어야 한다. 동사는 법과 시제, 인칭, 수에 따라 굴절을 하는데, 법은 직설법과 접속법, 명령법으로 나뉜다. 시제는 직설법의 9개 시제(현재, 현재완료, 미래, 미래완료, 과거, 불완료과거, 과거완료, 가정미래, 가정미래완료)와 접속법의 4개 시제(현재, 현재완료, 불완료과거, 과거완료)로 13개이며, 명령법은 긍정명령형과 부정명령형이 활용형이 다르다. 인칭은 1, 2, 3인칭을 구분하고 단수와 복수를 구분해서 각 동사는 기본형을 포함하여 104개의 형태를 갖고 있다. 기본 어순은 ‘주어 + 동사 + 목적어’로 분류되지만, 동사가 주어의 인칭과 수에 일치하며 동사만으로 주어를 알 수 있는 경우 대부분 주어를 생략한다. 또한 목적어가 대명사형일 경우에는 동사에 후치되지 않고 전치되어야 해서 명시적으로 ‘주어 + 동사 + 목적어’의 어순이 관찰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 2. 단순 전치사의 유형과 문법화

스페인어에서 전치사는 폐쇄 범주로 그 구성 요소가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현대어에서 관용구 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cabe*와 *so* 같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전치사로 쓰이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 (1)에서처럼 다른 범주와의 경계가 모호한 것들이 있어서 그 최종 목록은 학자들마다 상이하게 정의된다.

### (1) 범주의 경계가 모호한 전치사

#### a. 전치사와 접두사의 경계에 있는 요소: **pro**

las fuerzas **pro** reelección quieren estar seguras de obtener los votos necesarios.

재선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필요한 표를 확실히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Algunos congresistas progubernamentales podrían proponer una nueva ley.

친정부적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 b. 전치사와 접속사의 경계에 있는 요소: según

Según la nueva ley / Según dice la nueva ley, debemos pagar más impuestos. 새 법령에 따라 우리는 세금을 더 내야한다.

- c. 전치사와 부사의 경계에 있는 요소: hasta

Llegaron hasta mí. 나에게까지 도달했다.

Hasta yo comí. 나까지도 먹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스페인어권 전체를 아우르는 한림원 연합(Asociación de las Academias)의 문법책(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2009)에서 전치사로 분류한 요소들은 24개로 a, ante, bajo, cabe, con, contra, de, desde, durante, en, entre, hacia, hasta, mediante, para, por, pro, según, sin, so, sobre, tras, versus, vía이다. 이들 각각의 전치사들은 (2)에서처럼 일반적으로 명사적 요소를 보어로 취하며 공간적 관계 표지에서 시간적 관계 표지 및 문법적 관계와 같은 추상적 관계 표지로서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 확장 양상을 보인다.

- (2) 전치사 a

a. 공간: Voy a casa. 나 집에 가.

b. 시간: Nos vemos a las cinco. 우리 5시에 보자.

c. 문법표지: Quiero a mis padres. 나는 부모님을 사랑한다.

스페인어의 24개 전치사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라틴어에서 기원한 것이 16개로 가장 많다. 하지만 라틴어의 전치사를 그대로 계승한 것은 (3)에 나열된 13개로 라틴어의 전치사가 대략 36개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스페인어 분화 과정에서 26개나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 (3) ad(라틴어 전치사) > a(서어 전치사), ante > ante, cum > con, de > de, in > en, inter > entre, per > por, pro > pro, sine > sin, sub > so, secundum > según, super > sobre, trans > tras

그 밖의 전치사들 중 hasta와 versus는 ‘차용(borrowing)’에 의해 스페인어 전치사로 유입된 것이다. (4)의 hasta는 아랍어에서 차용된 유일한 전치사인데, 이는 로마인들과는 달리 아랍인들이 스페인을 약 800년간(711~1492) 지배하면서도 아랍어의 사용

을 스페인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의 *versus*는 원래 라틴어 어휘가 영어로 차용되어 전치사로 쓰이다가 다시 스페인어로 차용된 것이다.

- (4) *háttà* (아랍어 전치사) ‘~까지’ > *adta, ata, fasta, fata* > ***hasta*** (서어 전치사) ‘~까지’  
(5) ***versus*** (라틴 부사) ‘향해서’ > (영어 전치사) ~에 대항해서 > (서어 전치사) ~에 대항해서

나머지 9개의 전치사는 ‘범주의 전이(categorial change)’와 ‘축약(contraction)’이라는 2가지 유형의 ‘문법화 과정(grammaticalization)’을 거친 것들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범주의 변화를 거친 것은 5개로 (6)처럼 라틴어에서 타 범주에 속했던 것이 스페인어에서 전치사로 바뀐 경우와 (7)처럼 스페인어의 다른 품사에서 전이된 것으로 세분된다. 이러한 범주의 변화는 어휘적 의미가 강한 범주에서 통사 기능적 역할이 더 강한 범주로의 전이로 의미소가 문법소화 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 (6) ***vía*** (라틴 명사) ‘길’ > (서어 전치사) ‘~을 경유해서’  
***contra*** (라틴 부사) ‘반대로’ > (서어 전치사) ‘~을 반대하여’  
(7) ***bajo*** (서어 형용사) 작은 > (서어 전치사) ~의 아래에  
***durante*** (서어 현재분사) 지속하면서 > (서어 전치사) ~하는 동안  
***mediante*** (서어 현재분사) 중재하면서 > (서어 전치사) ~을 통해서

축약의 과정을 거친 전치사는 (8)에 나열된 4개로 둘 이상의 어휘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로 쓰이다가 형태마저도 하나로 융합된 것들이다.

- (8) (라틴어) *de* ‘~부터’+ *ex* ‘~에서’ > *des + de* > ***desde***  
(라틴어) *faciem* ‘얼굴’ + *a* > *faze + a* > *haz + a* > ***hacia***  
(라틴어) *per + a* > ***para***  
(서어) *a cabo de* > ***cabe***

### 3. 복합 전치사의 유형과 문법화

둘 이상의 어휘가 결합하여 하나의 전치사의 기능을 하는 복합 전치사의 예로 Romero & González(2011)는 외국어로 스페인어를 배우는 이들을 위한 문법책에서 ‘장소’, ‘거리’, ‘시간’의 3가지 의미 영역으로 (9)와 같이 15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는 전치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이러한 3가지 개념 영역을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중에는 축약의 과정을 거친 것이 4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는 잦은 사용 빈도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 (9) a. 장소: delante de(< de enante de), detrás de(< de trás de), debajo de(< de bajo de), encima de(< en cima de), dentro de, fuera de, al lado de, junto a, enfrente de, frente a, alrededor de  
b. 거리: cerca de, lejos de  
c. 시간: antes de, después de

복합 전치사를 더 상세히 분석해 보면, 일반적인 구조가 “문법화된 어휘 + 전치사” 혹은 “전치사1 + 문법화된 어휘 + 전치사2”로 관찰된다. 이러한 구조의 공통점은 마지막에 항상 전치사를 수반하며, 단순 전치사와 마찬가지로 통사적으로 반드시 보어의 기능을 하는 요소를 필요로 하는 비독립적 구조라는 것이다(García-Page 2008, 129).

복합 전치사와 일반적 통사구를 구분하는 데는 의미적 기준과 형태·통사적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의미적으로는 핵이 되는 어휘소의 의미가 탈색되어 문법화된 어휘소가 되는 것이다. (10a)에서 lugar는 ‘위치’ 또는 ‘장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10b)에서는 더 이상 장소적인 의미는 없으면 en lugar de가 결합된 한 단위로 ‘~대신에’라는 의미를 띤다. 형태·통사적 기준으로는 핵이 되는 어휘소가 성수 변화를 할 수 없으며, 출현하는 전치사가 다른 전치사로 교호되거나 생략될 수 없고 다른 요소들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10b)에서 명사 lugar는 성수 변화할 수 없으며, 전치사 en과 de도 다른 전치사로 교체될 수 없고 세 요소 모두 생략될 수 없다(Koike 153).

- (10) a. Ponte en el lugar de Jordi. Jordi의 위치에 서.  
b. Hagamos ejercicio en lugar de ir a tomar helado.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대신 운동하자.

복합 전치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의미 영역에서 한정적이고 세밀한 한두 가지 의미로만 쓰여서 동일 문맥에서 단순 전치사로 대체될 수 있는 것과 단순 전치사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밀하고 정교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상기의 예(10)에 쓰인 en lugar de ‘~대신에’라는 복합 전치사는 앞서 언급한 24개의 단순 전치사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문법화된 것이다. 이에 반해, 예(11)에서는 다양한 복합 전치사가 단순 전치사 según으로 대체될 수 있는데,

이렇게 단순 전치사로 표현할 수 있는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복합 전치사가 발전한 것은 동일한 음의 반복, 더 나아가 동일한 요소의 반복적인 사용을 매우 기피하는 스페인어 화자들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심상완 2016).

(11) Según / Conforme a / De acuerdo con / Con arreglo a la nueva ley, debemos pagar más impuestos. 새 법령에 따라 우리는 세금을 더 내야한다.

수백 개에 이르는 복합 전치사들은 예(12)와 (13)와 같이 형태적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하위 구분될 수 있다(García-Page 2008, 130-132). 하지만 복합 전치사는 폐쇄 범주가 아니며 a fin de와 a fin de que에서처럼 접속사구와 중첩되기도 해서 정확한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13)의 “전치사1 + 문법화된 어휘 + 전치사2” 구조가 더 숫자가 많은데, 이에 해당하는 구조로 Ueda(1990)는 428개, Koike(1997)는 425개를 제시하고 있다.

(12) “문법화된 요소 + 전치사”

- a. 명사 + 전치사: gracias a, frente a, rumbo a, respecto a, merced a, camino de...
- b. 형용사 + 전치사: conforme a, debido a, junto a, junto con...
- c. 부사 + 전치사: lejos de, fuera de, dentro de, cerca de, debajo de, delante de...
- d. 동사 + 전치사: pese a.

(13) “전치사1 + 문법화된 어휘 + 전치사2”

- a. 전치사1 + 단수명사 + 전치사2: a cambio de, a favor de, a fin de, a juicio de...
- b. 전치사1 + 복수명사 + 전치사2: de espaldas a, con miras a, con vistas a...
- c. 전치사1 + 정관사 + 명사 + 전치사2: al abrigo de, al alcance de, al estilo de...
- d. 전치사1 + lo + 형용사 + 전치사2: a lo largo/ancho de, en lo alto de...
- e. 전치사1 + 명사 + 접속사 + 명사 + 전치사2: a imagen y semejanza de...

Klégr(1997)은 (13)과 유사한 구조로 구성된 영어의 복합 전치사 473개를 ‘첨가나 배제’, ‘일치’, ‘이득’, ‘원인이나 이유’, ‘양보’, ‘조건’, ‘연결’, ‘정도’, ‘손실’, ‘불일치나 대조 혹은 비교’, ‘안내’, ‘확인’, ‘방법’, ‘수단이나 행위자’, ‘기원’, ‘참여나 협력’, ‘장소’, ‘소유’, ‘목적이나 목표’, ‘등급’, ‘대체’, ‘존중이나 무시’, ‘주제’, ‘지원’, ‘시간’이라는 25개의 세부의미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스페인어의 경우에도 Ueda가 제시한 428개의 복합 전치사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이는 앞서 제시한 ‘장소’, ‘거리’, ‘시간’의 기본적인 개념 영역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더 광범위하고 세분된 정밀한 개념 영역을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들의 인지적 필요성에 의해 일반

통사 구조가 복합 전치사로 문법화한 것으로 보인다.

#### 4. 이론적 시사점

##### 4.1 범언어적 함의

스페인어의 단순/복합전치사가 표시하는 문법적 기능은 다른 언어들과 유사하다 (근접, 부재, 수반, 비교, 도구, 원인, 유사, 전후상하 등). 이는 인간의 언어사용 활동에 있어 문법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개념들이 제한된 집합에 속함을 나타낸다. 문법적 개념들이 제한적 집합을 이룬다는 것은, 사물과 사물의 상호적 관계나, 구체적인 또는 추상적인 대상물이 사건이나 상황에서 가지는 역할에 대한 언어사용자들의 개념화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과관계, 조건관계, 수혜관계 등).

또한 유사한 문법개념을 표시하는 단순전치사와 복합전치사의 존재는 창의성, 현저성, 개념적 복잡성 등을 언어적으로 표상하려는 욕구에 따른 보편적 현상을 보인다(예: 근거표지 *según / conforme a / de acuerdo con / con arreglo a* 등) (cf. Rohdenburg 1996).

아울러, 스페인어가 가지는 언어개별성도 관찰된다. 특히 언어계통적인 이유로 라틴어에서 차용된 전치사들이 다수 있으며, 언어접촉의 이유로 아랍어 등에서 유래한 전치사도 존재한다. 또한 인접어이면서도 계통적으로 자매관계에 있는 프랑스어, 포르투갈어와의 상관성도 세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또 다른 언어개별성은 1차 전치사라 할 수 있는 단순전치사들이 기타 유럽어 (특히 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전치사 항목의 전문화(specialization; Hopper 1991)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여타한 이유가 있는지도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 4.2 유형론적 함의

스페인어는 굴절어로서 명사는 성, 수에 따라 굴절하고, 동사는 시제, 서법, 인칭, 수에 따라 굴절한다. 그러나 단순/복합전치사의 발달과정에서는 굴절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으며 이는 문장의 핵심요소로서보다는 부가요소로서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부가요소가 문장 내에서 가지는 기능은 대개 대상물을 상호관계나 상황 속에서의 위치 등을 추가로 표시하거나(예: 방향, 위치, 유무 등), 기타 개념적으로 복잡한 상호관계를 표시하는 것(예: 양보, 조건, 불일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가요소의 접속 방식은 복합전치사의 경우, 주로 연결장치라 할 수 있는 전치사가 포함되는 P(D)NP 구조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동일한 언어유형에 속한 다른 언어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형태통사적 구조이다. 또한 단순전치사가 접두사, 부사

또는 접속사와 동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은 영어와 같은 기타 언어에서도 관찰되는 공통현상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특징 이외에도 몇 가지 특이점도 발견된다. 특히 부가요소의 접속 방식 중 [명사+전치사]의 경우는 형태통사적 구조상 특이한 예이다(예: *gracias a, frente a, rumbo a, respecto a, merced a, camino de...*). 이는 명사는 그 범주의 특성상, 합성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명사와 직접 접속하기에 어려우며 전치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접속기능을 가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사의 경우에는 접속기능을 갖고는 있으나 뒤에 전치사를 동반하는 구조를 띠는 점에서 형태통사적으로 특이성을 보인다(예: *lejos de, fuera da, cerca de...*). 또한 동사는 대개 분사형으로 발달하여 전치사 또는 접속사로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스페인어의 경우 이는 매우 소수인 것으로 보이며 (예: *durante, mediante...*), 어원적인 품사를 더 밝혀보아야 하는 *pese a* ‘in spite of’가 있다.

#### 4.3 문법화 이론적 함의

어원적 어휘소의 특징의 면에서 보면, 범언어적으로 관찰되는 [관계명사 > 위치 표시 전치사] 등과 같은 경로들이 다수 관찰된다. 그 외에도 [시각표지 명사 > 관점/이유 표시 전치사], [법 > 근거표시 전치사] 등 일반적인 문법화 과정이 관찰된다.

또한 문법화 원리의 측면에서 보면, Heine and Kuteva (2002)의 ‘의미소실’(desemanticization), ‘탈범주화’(deategorialization), ‘형태소실’(erosion), ‘기능확대’(extension)의 모든 문법화 원리가 스페인어의 전치사 발달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즉, 의미소실의 경우, [구체적 > 추상적]으로의 변화 원리가 보편적으로 관찰된다. 문법개념이 통상 추상적 관계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진다 (예: *hacia*: ‘face’ > toward; 등). 또한 탈범주화의 원리에서 보면, 전치사로 발달한 일차범주어인 명사, 동사, 형용사의 경우, 1차 범주적 성격(굴절, 수, 성표지 등)을 잃어버려 형태적으로 불구형이 된다. 문법요소의 발달에 참여하는 일차범주어의 형태통사적 특징 소실은 일반적인 원리이다(예: *gracias a* / \**gracia a*; *merced a* / \**mercedes a*; *a favor de* / \**a un favor de*). 형태소실의 면에서 보면, 단순/복합전치사의 발달에 있어서 통합관계에 나타나는 형태적 소실은 빈번하게 관찰된다. 고빈도 노출에 따른 형태통사적 축약과 소실은 보편적인 원리 중의 하나이다(예: *delante de* < *de enante de*; *detrás de* < *de trás de*; *debajo de* < *de bajo de*). 마지막으로 기능확대의 면에서 보면, 전치사로 문법화함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문법기능의 종류가 확대된다. 문법요소의 기능확대는 보편적인 원리 중의 하나이다(예: *entre*: ‘between’ > between, among, each other, in, within...).

## 5. 결론

스페인어의 전치사 체계는 비교적 소수의 단순전치사와 다수의 복합전치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범언어적으로 보편적 현상이다. 복합전치사는 형태적으로 몇 가지 소수 유형에 속하며, 담당하는 문법적 기능도 개념적으로 제한된 집합에 속해 있다. 이는 범언어적으로 보편적 현상이다. 복합전치사의 형태적 특징은 SVO 언어체계에 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특징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전치사의 발달과정에 나타나는 의미적, 형태통사적 변화는 문법화 연구에서 통상 인정되고 있는 의미소실, 형태소실, 탈범주화, 기능확대의 원리들이 보편적으로 잘 관찰된다.

## 참고문헌

- 변광수 편저(2003), 『세계의 주요 언어』, 서울: 도서출판 역락.
- 심상완(2016), 「“의미적” 불협화음에 입각한 관계대명사 *quien*의 출현 제약에 관한 분석」, 『스페인어문학』 79.
- Corominas, Joan y Pascual, José (1981), *Diccionario crítico etimológico castellano e hispánico*, Madrid: Gredos.
- García-Page, Mario (2008), *Introducción a la fraseología española*, Barcelona: Anthropos Editorial.
- Heine, Bernd & Tania Kuteva (2012),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pper, Paul J. (1991) On some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 Traugott, Elizabeth C. and Heine, Bernd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2 vols. Vol. 1: 17-35.
- Klégr, Aleš (1997), “English complex prepositions of the prepositional phrase type”, *Acta Universitatis Carolinae - Philologica 5, Prague Studies in English XXII*, pp. 51-78
- Koike, Kazumi (1997), “Valores funcionales de las locuciones prepositivas en español”, *Onomazein 2*, 151-179.
- Pontrandolfo, Gianluca (2013), “La fraseología como estilema del lenguaje judicial: el caso de las locuciones prepositivas desde una perspectiva contrastiva”, Chierichetti, L. y Garofalo, G.(eds.), *Discurso profesional y lingüística de corpus. Perspectivas de investigación*, Bergamo: CELSB Libreria Universitaria.
- Real Academia Española y 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2009),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Libros, S. L. U.
- Rohdenburg, G. (1996) Cognitive complexity and increased grammatical explicitness in English. *Cognitive Linguistics 7.2*, 149-182.



Romero Dueñas, C. & González Hermoso, A. (2011), *Gramática del español lengua extranjera; Normas recursos para la comunicación*, Madrid: Edelsa.

Ueda, Hiroto (1990), "Frasas prepositivas del español", *Revista de la Facultad de Ciencias Humanísticas de la Universidad de Tokyo* 22, 9-33.